

1129(화) 갈라디아서 4-6장 육이 아니라 성령으로

하나님은 유월절 어린양이신 예수의 피로 성도들을 구원하셨습니다.
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거하게 하셨으며(4:4-7)
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<자녀>의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.
다시 율법과 할례를 택하는 것은 <종>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.

참 아브라함의 자손, 이삭의 자녀는 누구입니까(4:21-31)?
혈통이 아니라 <하나님의 약속>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.
하나님은 예수님으로 <새 언약>을 주셨습니다(고후3:6, 히9:15).
이제 옛 언약, 율법을 붙드는 것은 육을 따르는 것이며
예수를 통한 새 언약을 믿는 자가 약속의 자녀입니다.

율법을 지키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십시오.
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(5:2-15).
성령으로 살아갈 때에만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.
몸에 흔적 갖기를 원하면 예수의 흔적을 지니십시오(6:17).
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헌신에 동참하십시오(6:11-14).

바울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(5:1).
육의 종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(5:25).
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언행의 동기, 삶을 지배하는 힘은
영에서 비롯되며 자연히 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.
육은 찢어지나 영은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(5:16-26, 6:8-10).

“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
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
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
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(6:14-15)”

나는 육의 사람입니까, 영의 사람입니까?

- ❶ 종의 영으로 살아갑니까,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?
- ❷ 육체의 소욕에 따릅니까,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갈라디아서 4-6장